

## 개 회 사

파란 하늘과 향기로운 바람들이 마음에까지 편안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만물은 지나온 시간을 소중하게 품어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가고, 이에 더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선대의 가르침을 공경하여, 본래 갖추고 있던 성품이 스스로의 복전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의 모범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행복하기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제자의 소중한 정성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안락은 어제의 정진과 서로 의지했던 이웃의 행복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에 대한 성찰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희생은, 내일을 희망하는 모두에게 밝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선조께서 몸소 보여주신 너무도 친숙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서로 맞잡은 손으로 등불을 높게 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성으로 밝힌 빛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바로 곁에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서로 웃는 얼굴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환한 얼굴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를 통해 행복과 여유를 나누는 것이 더없는 덕행을 이루는 것임을 배우고,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곧 삶의 주인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은 편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사회, 남북의 아픈 대립을 상생의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민족의 염원에도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민족의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어두운 모두를 밝게 비추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국토가 평안한 가운데 지구촌의 평화를 이끌어 가는, 무한생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가 바로 주인공임을 아는 지혜의 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길을 마음으로 밝혀, 무량한 광명의 세상이 환하게 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